



즉시 배포용: 2018년 11월 1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국내 최초 고령 친화적인 주인 뉴욕을 지원할 행정명령 발표

행정명령은 뉴욕 주민의 삶에서 건강 및 웰빙을 향상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인구 건강 요구사항, 거주 적합 요소, 스마트 성장 원칙을 모든 주 정부 기관의 정책으로 제정하도록 설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기관에 적절한 경우 뉴욕주 [예방 어젠다\(Prevention Agenda\)](#) 우선사항과 고령 친화적 커뮤니티를 위한 미국 퇴직자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세계 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거주 적합 요소 여덟 가지](#)를 연방 및 주 계획, 기관 정책, 절차, 조달에 포함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번영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지원하고 끌어들이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으로 국내 최초 고령 친화적 주로서 뉴욕의 노력이 계속해서 최대화될 것입니다. 고령 친화적 스마트 성장 원칙을 주 정부의 기본 구조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돕고 모든 뉴욕 주민의 삶의 질과 건강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뉴욕에서 우리는 모든 연령대의 뉴욕 주민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고령자들에게 전례없이 헌신하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이 오래 살수록 그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고령 친화적 주로서 우리는 건강 요구사항 및 스마트 성장 계획을 모든 주 기관에 포함시켜 모든 뉴욕 주민들이 최고의 삶을 살도록 보장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주지사의 모든 정책을 가로지르는 건강(Health Across All Policies) 접근법을 더욱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주 기관들이 함께 인구 건강을 향상하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을 장려하며 지자체가 고령 친화적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계획 및 기본원리를 시행하게 돕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전미 퇴직자 협회(AARP) 및 세계 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2017년 뉴욕을 국내 최초 고령 친화적인 주로 지정했습니다.

고령 친화 개념을 정부 계약 및 조달 기회에 포함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면 더욱 건강하고 통합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으며 이로써 모든 연령대의 뉴욕 주민들이 쉽게 서비스를 받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며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목표가 설정된 조치 및 투자로 고령 친화 개념을 고려하거나 선택사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 한 곳에서 나이 드는 법을 지원하며 주택 공급, 건설, 정보 기술 같은 분야의 새 비즈니스 및 조달 모델을 지원합니다. 해당 사항은 고령 친화적 개념 채택에 인센티브 제공, 새 조달 가이드라인 작성, 금융 모델 수립, 정책 변경 같은 시스템 수준 변경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이래 Cuomo 주지사는 뉴욕주를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하며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뉴욕은 견줄 데 없는 다양한 스마트 성장 개혁과 결부하여 한 곳에서 나이 들 수 있게 지원하는 다면적 프로그램을 개척함으로써 깨끗하고 살기 좋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분야에서 국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해당 개혁은 여덟 가지 거주 적합 요소를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 2011년 [완전 거리법\(Complete Streets Act\)](#)에 서명한 이후 12개 카운티와 100개 이상의 빌리지, 타운, 도시에서 모든 연령대의 도로 사용자를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성, 이동성을 고려하는 완전 거리(Complete Streets)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 [살기 좋은 뉴욕\(Livable NY\)](#) 계획을 통해 뉴욕주는 지자체들과 함께 거주 적합성에 관련된 계획 결정용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지사가 획기적으로 만든 [가격이 합리적인 주택 공급 계획\(affordable housing plan\)](#)의 일환으로 뉴욕주는 합리적 가격의 주택 공급을 발전시키고 회복하는 데 1억 2,5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해당 주택 공급은 60세 이상 저소득층 뉴욕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의 일환으로 뉴욕주는 현재까지 30개 다운타운 지역에 3억 달러를 수여했습니다. 고령 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하려는 지자체들을 우선으로 수여하고 있습니다.
- 2017년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은 국내 최초로 주 전역 [노령화 서비스 모바일 앱](#)을 만들었습니다. 노인들과 간병인을 연결하여 건강 및 행복, 주택, 교통 선택권 등에 관한 정보를 비롯한 수당, 프로그램, 서비스에 관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 2011년 뉴욕주 토지 은행법(New York State Land Banks Act)에 서명한 이후 뉴욕주는 25개 토지 은행을 만들었으며 현재 서비스가 부족하며

빈곤한 지역사회에서 황폐지, 빈 토지, 유기 토지를 없애는 작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의 Greg Olsen 국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령 친화적, 스마트 성장 원칙을 이해하고 채택하는 지역사회는 새 거주민들을 뉴욕으로 끌어들이고 고령화 인구를 비롯한 사람들을 유지하며 성장합니다. 노령층의 뉴욕 주민들은 시민 참여, 고용, 관광산업 등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지적으로 기여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령 친화적 정책을 주 기관에 포함시키는 종합적 접근법을 개발하는 데 솔선수범하신 Cuomo 주지사님께 갈채를 보냅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Howard Zucke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2017년에 뉴욕이 국내 최초 고령 친화적 주가 되었을 때 시작한 모든 정책을 가로지르는 건강(Health Across All Policies)의 건강 협동적 접근법을 장려합니다. 모든 부문의 정책에 건강 고려사항을 통합시키면 가장 큰 건강 문제는 복잡하며 종종 의료 서비스 및 전통적 공중 보건 활동을 넘어서는 기타 사회 문제와 관련 있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뉴욕주 주무부의 Rossana Rosado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국내 최초 고령 친화적 주가 되면서 건강하고 고령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건강한 사회의 원칙이 주 정책 및 프로그램에 완전히 들어가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주무부는 자체 계획 및 지방 정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진행하여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주지사의 강하고 혁신적인 지시를 통해 그 노력이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주 상원 노령화 위원회(New York State Senate Aging Committee)의 위원장인 Sue Serin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령화 위원회장으로서 저의 오랜 목표는 우리 노인들이 자신의 지역사회 고향에서 진득하게 나이 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갖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고령층 뉴욕 주민에게 힘을 주는 일과 관련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개선하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을 장려하며 주 전역 지역사회가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조치를 이행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신 경영진에 감사드립니다. 이 진전으로 내년 주 예산에 우리 노인들을 위한 기금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노령화에 대한 뉴욕주 하원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Aging)의 의장인 Donna Lupard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령 친화적 정책을 주 전역 지역사회 계획에 넣으면 모든 연령대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지역인 브룸 카운티 같은 많은 지역사회들은 이미 더 건강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계획이 성공하도록 돕는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지사님, 제 동료들과 작업할 것이 기대됩니다.”

뉴욕주 공중 보건 및 건강 계획 위원회(New York State Public Health and Health Planning Council)의 **Jeff Kraut**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공중 보건 및 건강 계획 위원회(New York State Public Health and Health Planning Council)는 예방 어젠다(Prevention Agenda)의 지원을 통해 뉴욕주를 모든 연령대 사람들이 가장 건강한 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의 건강을 향상하며 주 전역 지역사회에 중요한 지원을 할 주지사님의 행정명령에 갈채를 보냅니다.”

뉴욕 의학 아카데미(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의 **Judith A. Salerno**(의학박사, 이학석사)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카데미는 모든 연령대 사람들의 건강을 장려하는 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신 주지사님께 갈채를 보냅니다. 주 기관에 기존 구조와 체계를 활용하여 예방 어젠다(Prevention Agenda) 우선사항과 고령 친화적 도시 요소 여덟 가지를 해결하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오랫동안 사람들이 내내 활동적으로 참여하게 유지하고 나이 차별을 줄이며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 전역의 인구 건강 및 웰빙을 개선하기 위해 선견지명 있는 공공/민간 접근법을 시행하신 주지사님의 파트너가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미국 퇴직자 협회 (AARP)의 **Beth Finkel** 뉴욕주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님의 행정명령은 고령 친화적인 뉴욕이 모든 주 기관의 계획 및 조치의 일부가 되도록 만들고 우리 지역사회가 모든 연령대 뉴욕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구성할지 재고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발전이며, 작년 뉴욕이 미국 퇴직자 협회(AARP) 및 세계 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및 주 네트워크에 참여할 첫 주가 되게 노력하신 주지사님의 조치에 기반합니다. 모든 연령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주택 개발, 가격이 합리적인 커뮤니티 건강 서비스 등 주 및 모든 기관의 개선으로 뉴욕은 모든 세대가 살기에 더욱 매력적인 장소가 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